

‘금강산’에서 전승되는 아름다움의 장소신화 : 사회적 자연과 명산의 여행지리

신 성 희*

Place-myth of The Scenic Beauty from Mt. Kungang :
The social nature and the travel geography of noted mountains

Shin, Sung Hee*

요약 : 사회과학계에서 ‘산(山)’은 환경 및 생태와 주로 연관되어 사회와 문화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자연’의 일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한반도에서 산은 자연과 사회집단이 교류하면서 형성하는 ‘사회적 자연’이며 이러한 산지들로의 여행은 한국인들에게 있어 자연의 사회화 및 문화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여러 명산들 가운데 왜 금강산은 유독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전승되어 왔으며 수많은 예술창작의 원천이 되어 왔는가? 에 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조선시대 금강산의 여행 지리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인의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서 금강산이 지닌 장소신화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조선시대의 금강산 여정은 당시의 교통 여건에서 한계에 달하는 체력소모와 장기간의 불편 및 위험에 끊임없는 노력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도착하여 극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금강산의 경관은 더욱 더 아름답고 신비롭게 기억되었다. 금강산 여행을 필생의 소망으로 여기고 성취하려던 이유는, 선대 여행자들의 기록과 예술작품을 통해 금강산은 당시 최고의 ‘여행 로망지’로 알려졌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토록 아름답다고 알려진 금강산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순수한 동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의 실천은 개인의 미적 향유와 즐거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연감상을 도덕적 책무 및 학문적 이상을 실천하는 일과 동일시하는 유교적 자연관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한편, 금강산 여행자들은 각종 기행문학과 회화 등 예술작품으로 금강산 여행을 재현하여 기억하였는데, 이 또한 개인적 차원의 문화예술 행위를 넘어서서 가보지 못한 사람들과 후대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즉 여행 경험의 적극적인 사회적 기록이자 문화정치적 재현의 과정이었다. 이는 금강산 여정의 종료가 결코 여행의 끝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여행의 기억과 재현을 통해 상상의 지리로 새롭게 재생산되어,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금강산이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는 독보적인 장소신화를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주요어 : 금강산, 여행지리, 산, 명산, 사회적 자연, 장소신화, 아름다운 경관, 유교적 자연관, 여행의 기억, 사회적 재현

Abstract : Conventional social science typically regards the idea of a ‘mountain’ as part of ‘nature’ and a physical environment existing separately from, or prior to, human society and culture. However, in Korea, which is 70% mountainous land, the ‘mountain’ is part of a unique ‘social nature’. This research develops the idea that in this context the mountain is a social nature and a cultural landscape which are tied heavily to the idea of travel. The article interrogates why the scenic beauties of Mt. Kungang have been perceived and conveyed through multiple generations since the Chosun Dynasty period. Focusing on Mt. Kungang, this article illustrates how strongly people have held dreams of mountain travel, for the whole life-time. Travel writings(or accounts of trips to the mountain) and artwork have played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creating Mt. Kungang’s reputation as the most beautiful mountain in the country. At the same time, the access to the mountain was often a dangerous adventure, with many travelers facing hunger and extreme physical challenges. As portrayed in writings and artwork, the overall effect of these dynamics was the creation of a socionatural place of striking beauty that even seemed to have mystical or magical fantasy. According to Confucian ideals, full appreciation of nature and its beauty was key to understanding the logics of the universe and to achieving a high moral standard, which contributed to decide to leave for the mountain as well. The essays, poems, and paintings of Mt. Kungang since the Chosun Dynasty period that portrayed the mountain’s beauty collectively served to produce the mountain as a socionatural landscape engendered with potent place-myths, important historical meaning, and strong aesthetic associations. Thus, the travel to the mountain seemed never completed over until travelers had completed various artistic representations to record and to memorize what they’d done and seen in Mt. Kungang, which had been performed for the strong purpose of social sharing of the real the mountain’s beauties and itinerary.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sunghee_shin@snu.ac.kr)

Key Words : Mt. Kungang, Travel Geography, Noted mountains, Mountain, Social nature, Place-myth, Scenic beauty, Confucian idea of nature, Memory of travel, social representation.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 국민 애창가곡의 하나인 ‘그리운 금강산’에서 금강산은 신령하고 영험한 산, 혹은 생명력의 원천이거나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여 보호하는 어머니 산이 아니라, 좀 다른 이미지로 재현된다.

“누구의 주재권자 맑고 고운산 그리운 만이
천봉 말은 없어도...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못
가본지 몇몇 해...”

다만 사무치도록 ‘고운 산’이며, ‘아름다운 산’으로서 그 신성한 아름다움을 민족적으로 그리워하는 산이라고 할 수 있다. 비유컨대 금강산의 빼어난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은 한민족의 마음 속에 유전적으로 전승된다고 표현될 만큼 깊이 각인되어 왔다(이광수 1924, 유홍준 2001). 따라서 오랜 과거로부터 금강산은 아름다운 볼거리 즉, 경관의 시각적 경험 그 자체를 순수한 동기로 하는 독특한 순례와 여행을 위한 장소가 되어 왔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산이라는 역사적인 인식은 금강산이라는 산지에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장소감이며 금강산이 유지하고 있는 장소신화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리산, 속리산, 한라산 등 저마다 다른 수려한 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국토의 여러 명산들 가운데에서도 ‘왜 금강산은 유독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서 전승되며 한국인의 수많은 예술창작의 원천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질문과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금강산 경치의 곱디 고움을 노래하고 그리는 것이 한국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시 된 때문일 것이다. 그러하기에 한반도 제일의 아름다운 산으로서 금강산의 상징과 금강산을 찾아가는 여행의 지리를 이해하는 일은 한국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집단 간의 관계를 해독해 보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산지

로 이루어진 한국의 지리학계에서 산 혹은 산지에 관한 학술적 접근이 주로 자연생태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었고, 반면에 문화지리 연구의 중심 개념 들인 장소(place) 혹은 장소감(sense of place)의 앵글을 통하여 다루는 연구가 드물었다는 것은 다소 놀라운 일이다. 그리하여 최근에 역사지리학 분야를 중심으로 명산(名山)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현대 인문학의 대상으로서 조명하고 있다. 명산을 어떤 특별한 산지와 특정한 문화집단이 오랜 시간 관계하여 맺은 상호관계의 총합체로서, 그리고 자연과 문화를 포괄하는 통섭의 대상으로서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최원석 2009, 2014).

그런데, 산 혹은 산지로 향하는 이동과 그 여행의 동기에 대해 보다 분석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산으로 향하는 이동에는 각자의 취향에 따른 개인적인 행태일 때도 있지만, 백두산, 지리산 그리고 금강산과 같은 역사적인 명산으로 향하려는 결심과 그 여정은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온 독특한 산지의 상징과 의미의 경험을 다시 공감하고자 하는 전승 활동이자 의지가 내재된 특유의 집합적인 문화지리적 현상으로서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의 산지, 그리고 산지의 자연경관은 인간사회의 외부에 탈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원초적인 자연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역사경관이자 사회적으로 구성된 자연이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의 대표적 명산의 하나인 금강산에 주목하여 조선시대 사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금강산 여행을 검토하였다.

금강산의 수려한 경관은 민족적 자존심의 원천이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예술작품 속에서 재현되는 상상력의 원천이었다(진종현 2005). 예술적 열망 뿐만이 아니라 참다운 사대부라면, 살아 생전에 꼭 한번 직접 찾아가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정치영 2003, 2015)으로 꼽혔던, 조선시대 최고의 ‘여행 로망지’였다는 점은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의제가 된다.

이 글에서는 금강산이라는 산지가 한국인에게

들을 검토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2) 금강산 지역 개요

금강산 지역은 분단이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남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산지였다. 2002년 금강산 관광지구법이 제정되어 2003년에 금강산 육로 관광이 시작되면서 역사적인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08년 이후 관광이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보통 ‘금강산’이라고 하는 곳은 행정구역상으로 강원도 고성군·통천군, 금강군(본래 회양군)의 3개군에 걸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동서 40km, 남북 60km, 면적 530km²에 달하는 산지 지역이다. 금강산은 내무재령(안무재)의 서쪽지역을 내금강, 동쪽 지역을 ‘외금강’, 해금강으로 나누어 부른다²⁾.

금강산의 ‘금강(金剛)’은 불교 경전인 화엄경에 “해동에 보살이 사는 금강산이 있다.”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동국여지승람에서 금강, 개골(皆骨), 열반(涅槃), 기달(似恒), 풍악의 여러 이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금강’과 ‘열반’은 불교용어이며, 나머지는 계절별 상이한 경관에 따른 명칭이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금강산’으로 통칭된 것은 조선시대까지 금강산을 방문한 사대부들이 그들의 여행을 금강산 사찰의 승려들에게 의존하게 된 때문이기도 하고 장안사, 유점사, 표훈사 등 명 사찰이 많이 존재하는 이유에서 금강산에는 불교적 색채가 두드러진 때문이기도 하다. 일찍이 고려시대부터 금강산은 탐승지로서 기록되었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금강산의 절경과 유람의 미학 등이 극대화되었다. 이러한 금강산의 역사는 1945년 광복 직후 남북 분단과 함께 일시에 단절되었고 왕래도 금지되었다.

3. 산(山)에 관한 문화지리학적 접근

1) ‘사회적 자연’으로서 산

‘자연(nature)’은 최근 사회과학의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자연’은 환경(environment)과 익숙하게

연계되면서, 대개 자연은 사회와 문화 밖의 세계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적이고 순수한 것으로 믿어져 왔기 때문에, 자연은 과학 혹은 생태의 영역에 속하여 사회적으로 보존(conservation)되거나 보호받아야 할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었다(Katz, 2005).

그러나 최근에 빈번히 인용되고 있는 ‘사회(적) 자연(social nature)’라는 개념은 자연을 ‘사회’ 및 문화와 연결 짓는다(Castree 2001, Braun 2002, Jin 2004). 이 사회적 자연의 관점에서는 사회 밖에 분리하여 존재하는 외부적 자연(external nature), 불변의 가치와 속성을 지닌 내재적 자연(intrinsic nature)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보편적 자연(universal nature)이란 존재하지 않는다(Castree and Braun 2001, 6-9). 이러한 사회-자연주의자들은 나아가 자연의 경관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상징 이미지이며, 자연자체가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적 개입에 의해 구성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전종현 2005; Castree and Braun, 2005; Katz 2005). 한편, 자연에 부여된 신화와 문화적인 실천 사이에는 강력한 역사적 관련이 있다는 샤마(Shama 1995)의 견해는 한국의 지리산, 백두산, 금강산과 같은 명산들을 찾아가고 의미를 부여하는 명산 여행 혹은 명승지 기행과 같은 역사적이고 사회적으로 축적된 실천들을 고찰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의 대부분이 산지인 한반도에서, 빼어나게 아름다운 경치라는 ‘명승(名勝)’의 개념도 대체로 산이라는 자연지형(natural land-forms)과 무관하게 형성될 수 없는 수려한 경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종현(2013)은 명승이란 한국에서 전개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하는 유산(heritage)이자, 집단적 전승문화이며 ‘문화경관’으로서 파악하였다(전종현 2013, 564).

이러한 자연의 상징적 경관은 문화경관일 뿐만 아니라 ‘역사경관’이기도 하다. 페인(Fein)에 의하면 인간이 레크레이션 등 특정한 목적으로 보전해온 자연경관도 넓은 의미의 역사경관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Fein, 1988). 즉, 어떠한 인공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은 상태의 자연도 역사경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관련하여 심승희(1995)가 제시한 역사경관 개념도 역사적으로 유구하게 인식되는 경관도 결코 과거의 경관이 아니며, 현재의 사회

적 선택에 의해 남아있게 된, 즉 현재의 가치와 판단에 의해 보존되고 존재하는 것이기에 현재의 경관이라는 견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심승희 1995, 44).

그러므로 명산이 자아내는 산지경관은 현재 아무런 인공적 가미 없이 남아있는 ‘자연’의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과거 어떤 시대로부터 이어진 특정한 역사성과 현재의 미적 가치도 동시에 획득하여 가치가 유지되고 있기에 역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그리하여 문화적인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인 것이다.

사회적 자연론 그리고 문화경관론을 통해 이루어진 신문화지리학의 학술적 성과는 자연이 스스로 존립하는 원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자연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산’이란 야생 그대로의 자연(wild nature)으로서 보다 쉽사리 연상되고 있다는 점은 비판되거나 논외로 할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일상세계에서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러니까 천연의 자연의 모습으로 믿어지는 산지경관과 산지에 형성되는 생태환경은 사람들에게 인공이 아닌 보다 ‘진정한 장소(authentic place)’로서 받아들여지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진정하다고 믿어지는 장소로의 여행은 오늘날의 관광 자원 및 관광 목적지 개발에서도 우선적으로 다뤄지는 핵심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2) 명산(名山)의 장소신화

금강산은 특히 조선시대부터 천하 제일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닌 산지로서 명성을 지녀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 산에 관하여 한국인들에게 공유되고 있는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시야에 들어오는 산지의 모습이란, 보는 사람의 수만큼 존재할 것이며 개개인의 시각적 취향과 미학이 각각 상이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산의 모습’라는 획일적인 결론에 결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강산이 전승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는 상징성은, 개별적인 시지

각(視知覺)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프리즘에 모여지고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이유에서, 그리고 이처럼 되기까지 어떤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신화학자 바르트(Bartes)에게 신화란 집단적 표상과도 유사한데, “myth(신화)”란 논리적 귀결에 의해 도출된 지식이 아니라 일정한 왜곡이 수반된 것이며 이 왜곡은 사회적 의미화 과정의 산물이다(심승희 2000, 18).

셴즈(Shields 1991)와 쇼트(Short 1991)와 같은 지리학자들에 의해서는 ‘장소신화’라는 개념으로 수용되었는데, 종합해보면 장소신화란 어떤 장소에 관하여 오랫동안 실재와 환타지가 조합되어 사회적으로 구성된 산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셴즈는 특히 관광부문에 주목하여 장소신화를 분석하였는데, 역사적인 장소이미지들의 집합 역사를 추적하여 장소이미지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심승희 2000, 20)

본 연구에서는 금강산이 획득하고 있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지 혹은 자연’이라는 역사적인 상징을 금강산의 독특한 장소신화로서 파악하고자 하며, 금강산으로의 지속적인 여행의 가치를 유발하는 강력한 동인으로서 가정하고 있다.

4. 가장 아름다운 자연, 금강산의 여행지리

1) 명산 여행의 의미

근대산업시기 이후에 형성된 관광(tourism)³⁾ 개념이 존재하기 전에, 수려한 산수강산을 찾아 가는 것을 “탐승(探勝)”이라고 불렀는데 명승지를 탐방한다는 뜻이다. 당시에 발간된 금강산 안내책을 보면 모두 탐승객이라고 쓰고 있고 북한에서는 아직도 탐승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인다.

그런데 조선시대 문인들은 자신들의 금강산 여행을 “유람(遊覽)”이라고 했다고 한다. 옛 문인들에게 있어서 ‘유(遊)’란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편안하게 자적하며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유”의 의미이기 때문이다(유홍준, 2002).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를 떤면 “어려서 퇴계에게 배웠다”고 하지 않고 “퇴계 밑에서 놀았다”고 했다.

즉, 명산을 찾아 유람하는 것은 자연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고 자연 교감하면서 사물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삼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명산을 유람하며 심신을 수양하는 것은 공자가 ‘유어예(遊於藝)’한 것을 ‘유어명승(遊於名勝)’ 하는 것이니 ‘놀 유(遊)’자를 쓰는 것이 당연하였다. 따라서 옛 사람들의 금강산 기행문은 김창현의 <동유기>, 홍영하의 <유풍악기(遊楓嶽記)> 등 거의 대부분의 기(記) 앞에 유(遊)자를 붙였다.

그러면 이처럼 관광이라는 용어가 존재하기 이전의 금강산 유람이나 탐승 활동은 모두 ‘여행’이라고 통칭할 수 있다. 여행을 의미하는 영어의 ‘travel’이라는 단어는 노고, 중노동을 뜻하는 ‘travail’에서 파생하였다. travel은 유럽에서 여행이 위험하고 힘들었던 암흑기(A.D.500년) 이후에 생겨난 것으로 ‘고통과 위험에 가득찬 여행에서 무사히 돌아오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Walter & Skeat 1983).

1800년대 후반에 한반도와 중국 및 일본을 방문한 영국의 여류 지리학자 비숍(Bishop)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성지참배 같은 긴 여행을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여행을 많이 하는 편이다. “...보부상들이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조상의 제사나 친지들의 유고(有故), ‘구경’이라고 불리는 유람, 묘자리 찾기... 등등의 이유로 여행을 하고 있었다.”고 기록하였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육로들을 통해서 장소와 장소간의 움직임이 잦았고 멀리 떨어진 장소로의 ‘구경’을 다녀오기도 하였다고도 전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여 다니던 ‘구경’과는 달리 명승을 찾아 떠나는 ‘유람’은 사대부 계층이 보다 멀리 떠나는 여행이었으며 일생에 빈번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금강산 여행에 관련하여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금강산에 유람 온 가장 오래된 명사(名士)라고 한다면 우선 신라시대(약 6세기) 화랑들이다. 이들은 관동지방을 두루 유람하며 심신을 단련하던 중 삼일포에 이르러 여기서 하루만 놀다 가자고 했다가 그 풍광에 취해 사흘을 쉬어갔다고 해서 이 호수는 “삼일포”라는 이름을 얻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화이기도 하다⁴⁾. 역사적으로 명산, 명승지를 찾아 길을 떠나는 것은 진정한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에 도달하는 것이며, 자연 경관이 자아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정신의 휴식을 찾는 여

행의 지리이다.

2) 금강산 여행의 이유와 동기

다른 명산들과 비교해볼 때, 가령 지리산은 한국인에게 ‘어머니 산’으로서 지리산 노고단이 본래 노구당이라는 어머니의 어머니인 할머니 산신을 모신 단이 바뀐 지명이다. 금강산이 명산이지만 돌산이라 먹거리를 공급하기 보다는 신앙의 장소인 절들만 이곳저곳에 있어서 옛 사람들은 지리산과 분리하여 금강산을 여성에 비유하더라도 절세의 미인이라고 하였지 어머니라고는 하지 않았다 는 것이다(최원석 2015, 75~76).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고문헌에 의하면, 금강산은 특히 조선시대에 중국 사신들이 꼭 가 보아야만 하는 장소였다(정치영 2005, 34). 또한 이증환은 「택리지」에서 금강산의 지세와 아름다움을 제법 길게 전하는데 이증환은 불교와 관련된 전설들, 즉 서역천축국 경문에 있는 ‘금강’을 조선의 ‘금강산’과 관련시키는 데에는 의문시하지만, 금강산이 나라 안의 제일가는 명산이라는 점에 동의한다(이증환 1993, 156). 강산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산으로 경관이 뛰어나 예로부터 시가나 문장으로 많이 표현되었다. 고려 시대 이전까지 금강산을 표현한 시문은 남아 전하는 것이 거의 없고, 고려 시대에 들어와서 지어진 한시문들이 약간 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곡(李穀)의 <동유기東遊記>라고 알려져 있다. 조선시대 여행기인 ‘유산기’는 상당수 금강산에 다녀온 후 기록한 것이 많은데, 많은 금강산 유산기에는 “중국인들도 고려에 태어나 금강산을 직접 구경하는 것이 소원인데 바로 이 나라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구경하지 못한다면 되겠는가”라는 구절이 공통적으로 파악된다(정치영 2015, 36). 일체 강점기에는 금강산으로 가는 관광목적의 전기철도가 놓여지고 자동차가 다닐 수 있어서 조선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대적인 교통여건이 개선되었다. 그렇지만 이 때에도 금강산 여행은 막대한 경제적 시간적 지출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20세기 초에도 금강산 여행은 소수들에게 허락되는 것이었다. 이광수는 금강산을 1921년, 1923년 두 차례 여행하고 돌아와서 <신생활>이라는 잡지에 그

여행후기를 연재하다가 1924년에 이 글들을 묶어 <금강산 유기(遊記)>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금강산 유기>에서 이광수는 조선시대에 김시습은 8차례나 금강산을 다녀왔는데 두 번 다녀왔으니 김시습의 4분의1도 못 미쳐 다녀왔다고 애통해하는 대목이 있을 정도이다(이광수, 1924).

그런데 이처럼 세대와 신분, 남녀를 뛰어넘어 동경하는 가장 아름다운 명산인 금강산으로 직접 여행가는 것은 웬만한 사대부에게도 평생에 한번 도전하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마을을 떠나 유람을 간다는 것은 당시로선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일이며 지극히 극소수 계층에만 허용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금강산 여행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았으며 그 여행의 가장 큰 동기는 오직 금강산과 그 주변의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기 위한 것이었다.

3) 금강산 여행길-1. 고지도상의 여행편의성

조선후기의 고지도(古地圖)를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금강산 육로교통 및 여행 편의성에 관한 정보는 주로 직선과 곡선으로 표현된 ‘도로(道路)’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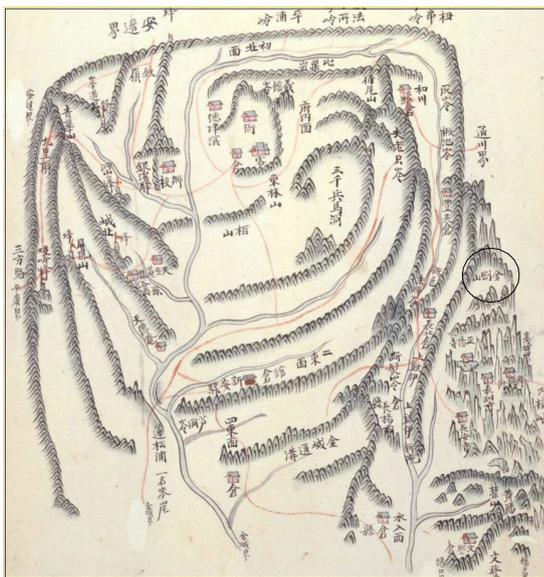


그림 2. 해동지도와 금강산 위치

여관 기능을 지닌 ‘역(驛)’의 분포를 통해서 이다⁵⁾. 또한 관료와 사신들의 숙소로도 활용되었던 ‘객사(客舍)’, 그리고 조운을 위해 현물을 보관하였던 ‘창(倉)’의 분포와 그 숫자도 고려할 만한 정보이다. 이러한 조선후기에서 구한말 고지도들에 금강산이 표현된 지역은 ‘고성郡’과 ‘회양府’이다. ‘고성郡’은 일제시대의 고성군 고성면, 장전읍, 외금강면, 서면, 수동면에 해당하며 현재는 현재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일대인데 남쪽의 일부 지역은 비무장 지대와 남한 지역에 걸쳐 있다. ‘고성郡’ 지도에는 오늘날 “외금강” 그리고 “해금강”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주로 표현되어 있고 일부 내금강도 포함된다.

한편 ‘회양府’는 강원도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고을로 철령을 사이에 두고 함경도와 접하고 있으며, 해방 전 행정구역으로는 부내면, 상초북면, 하초북면, 난곡면, 안풍면, 사동면, 장양면으로 되어 있었다(현재 북한의 강원도 금강군, 회양군). 따라서 ‘회양府’ 지도에서는 주로 내금강 지역 및 내금강과 함경도로 이어지는 지리적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림 3. 조선지도와 금강산 위치

하지만 도로 관련 정보들만으로는 당시의 금강산으로 여행길의 편의성이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한반도 전역의 육로교통이 열악하였다는 것 외에도 금강산 지역이 표현된 고지도들에 나타나는 지리정보들을 근거로 금강산으로의 접근

성과 여행의 편의성에 대해 파악해 볼 수 있다.

우선 해동지도와 조선지도(1750~1758)에서 역의 숫자는 <해동지도>와 동일하고 외금강에서 더 많은 창의 분포를 보인다. 도로들은 가는 흥선으로 그렸지만 도로명의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 역

표 1. 조선시대 고지도상의 금강산의 여행편의시설

표기된 명칭	역	창	주도로	객사	사찰	
해동지도	고성군	3곳	1곳	-	1곳	4곳
			창(倉)	-	객(客)	원통사(圓通寺) 유참사(楡站寺) 발연사(鉢淵寺) 신계사(新溪寺)
	회양부	2곳	6개	-	1곳	
		신안역(新安驛) 은계역(銀溪驛)	관창(館倉) 문등창(文登倉) 장북창(長北倉) 창(倉) 창(倉) 창(倉) 풍미창(豊美倉)	-	객(客)	표훈사(表訓寺) 장안사(長安寺) 정양사(正陽寺)
조선지도	고성군	3곳	1곳	-	-	3곳
		고령역(高岑驛) 대강역(大康驛) 양진역(養珍驛)	외창(外倉)	-	-	발연사(鉢淵寺) 신계사(新溪寺) 원통(圓通)
	회양부	2곳	6곳	-	-	3곳
		신안역(新安驛) 은계역(銀溪驛)	장북창(長北倉) 남곡창(嵐谷倉) 문대창(文臺倉) 창(倉) 창(倉) 창(倉)	-	-	장안사(長安寺) 정양사(正陽寺) 안국사(安國寺)
1872년 군현도	고성군	3곳	2개	1곳	1곳	2곳
		고잠역(高岑驛) 대강역(大康驛) 진역(養珍驛)	외창(外倉) 읍창(邑倉)	대로(大路)	객사(客舍)	신계사(神溪寺) 유점사(楡岾寺)
	회양부	2곳	9곳	4곳	1곳	
		신안역(新安驛) 은계역(銀溪驛)	현창(縣倉) 화천창(和川倉) 문등창(文登倉) 부창(府倉) 사동창(泗東倉) 신안창(新安倉) 오천창(烏川倉) 장북창(長北倉) 장현창(長縣倉)	거경로(距境路) 대로(大路) 대로(大路) 소로(小路)	객사(客舍)	장안사(長安寺) 표훈사(表訓寺)

의 숫자는 외금강, 해금강 일대가 3개로 내금강 쪽의 2개보다 1개가 더 많이 보인다. ‘창’의 숫자는 내금강 일대에 압도적으로 많이 포진하고 있다. <1872년 군현도>의 ‘고성郡’ 지도에서는 1개의 객사와 3개역 그리고 2개의 창(倉)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리고 특별히 ‘대로(大路)’ 혹은 ‘소로(小路)’로 표현된 도로는 없다. ‘회양府’ 지도에서는 1개 객사와 2개역, 그리고 9개창이 나타나며 대로 2개 등 4개의 도로가 홍선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성군 지도에서는 읍치는 성곽으로 되어 있으며 客舍, 衙舍가 있고 성 밖 서쪽에 향교가 있다. 서쪽에 금강산이 위치하여 있는데 봉우리들이 많이 보인다. 읍성 북쪽으로 삼일포가 해안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고 있다. 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된 도로는 평탄한데, 大幹을 넘는 서쪽으로의 통로는 험준하게 표현되어 있다. <회양부> 지도에서는 新津江이 읍치 서쪽을 지나는데, 남쪽으로 蓮松浦가 표시되어 있다. 동쪽 지역에 대해서는 “결친 언덕, 중복된 재가 그윽하게 깊고, 매우 험하다”고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다. 이 지도에서도 여러 고개(峯)가 표시되어 있으며 육로망은 이곳들을 지나게 된다. 또한 동남쪽에 금강산이 나타나는데 산수화 기법으로 여러 봉우리들이 표현되어 있다.

회양부에 속하는 和川, 嵐谷, 水入, 文登, 長楊面은 과거에 縣이 있던 곳으로(이현균, 2000) 각각 창고가 설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 서북쪽의 鐵嶺은 한반도 동북 방향의 중요한 통로가 되는 곳으로 大路가 지나는 길목이다. 육로상에 銀溪驛, 新安驛이 표시되어 있다. 고성군 지도에서는 도로를 홍선으로 그렸는데 역의 이름이 읍치로 부터의 거리와 함께 표기되어 있다. 금강산에 관하여서는 계곡과 사찰의 이름도 비교적 상세하게 되어있다.

3) 금강산 여행길-2. 서양인들의 기록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초기까지의 한반도의 교통사정은 1890년대 말엽에 철도가 놓이기 이전까지 한국을 답사한 서양인들이 남긴 기록 속에서 파악될 수 있는데, 그들은 모두 국적과 직업을 막론하고 한결 같이 육로교통의 원시적인 취약성에 대하여 상세한 경험을 기록해 두었다. 대표적으로 알렌(Allen, 1908)은 <조선견문기> 속에 “조선 사람들의 운송수단은 큰 우마차, 돛단배 또는 소, 나귀, 남자의 등, 여자의 머리로 나르는 것”이었고, “사람들은 발로 걸거나 나귀에 타고나 또는 가마에 타고 다녔다”고 적어 두었다(신복룡 역 1999: 82). 또 1897년도에 뉴욕에서 출간된 영국인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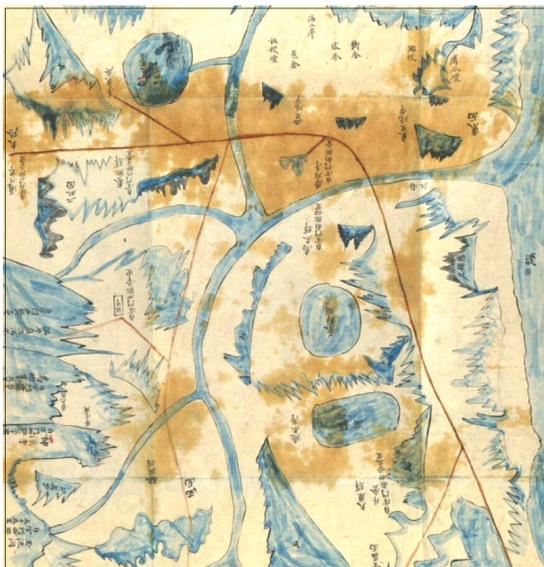


그림 4. 1872년 군현도 - 고성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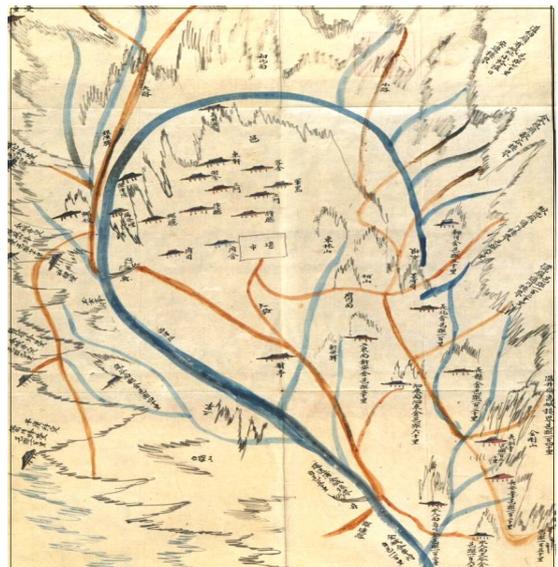


그림 5. 1872년 군현도 - 회양부

학자 비숍(Bishop)의 답사기에는 “모든 종류의 수하물들은 ‘이른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서울로 가도록 되어 있다. 이런 실례의 말을 하는 것은 ‘길(road)’이라는 말에 합당한 길이 없기 때문이다.... 말을 타거나 걸거나 간에 시간당 3마일 이상은 갈 수 없는 한국의 길은 거의 이름이 없다. ... 대개의 경우, 그 길이란 사람이나 동물이 여러 번 다녀 그저 사용이 가능해진 오솔길일 뿐이었다. ... 산에서의 길이란 자갈로 뒤덮인 하상(河床)에 불과한 것이 많다. ... 내가 그토록 여러 번 경험한 이 악명 높은 ‘족쇄 길’은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라고 설명되고 있다(Bishop 1987, 153~154).

비슷한 시기에 북부지방을 답사한 러시아 군장교들도 당시의 곤혹스런 도로 상태에 대하여 역시 비숍의 기록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⁶⁾. “유럽식 의미로 이 대로를 ‘길’이라 부르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건설하여 다듬어야만 할 것이다... 이 나라는 문명국에 있게 마련인 교통기관과 편한 길을 찾는다는 것이 매우 이상한 그런 곳이었다.”

특히 비숍은 가장 교통의 불편이 심한 곳으로 ‘서울에서 원산까지의 길’을 꼽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금강산으로의 여정길이었다. 구한말의 도로 사정을 가장 소상하게 소개한 <한국지>에는 한국의 도로는 오로지 주민들에게만 필요한 것이어서 수세기를 걸쳐 오는 동안 개수한 바가 없었다고 단정짓고 엄격한 의미에서 차량의 통행을 감내할 만한 도로는 극히 적어서 차마(車馬)의 통행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왕래에 불편함이 여간한 것이 아니라고 토로하였다.

조선시대의 주요 육상 도로인 ‘관로(官路)’들은 한양을 중심으로 두고 방사상으로 전국에 뻗어 있었는데 주로 중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도도로키 2004, 80). 이러한 이유에서 북부지방이자 산간지역에 속하는 ‘서울~원산’의 여정도 또한 영국에서 온 서양 지리학자의 눈에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구한말까지 조선의 교통상황이 원시적인 상황을 면치 못한 이유는 몇 가지로 제시되어 오고 있다. 가령, 강만길(1973, 9)은 농업을 근간으로 했던 조선시대에 백성들이 농사에 전념하고 여행을 못하게 하도록 도로방치정책을 구현하였다는

설명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는 조선 초부터 중농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상공업을 금압한 것에서 이유를 찾는다. 또 박경용(1995)은 조선이 외침을 막아 낼 적극적인 국방정책을 외면하고 소극적인 방위 전략을 수립하기였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하였다. 즉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은 변방과 통하는 요충지는 물론 외적이 침입할 만한 해안지역이나 도읍으로 통하는 중요한 고개는 일부러 길을 더 험하도록 버려두는 정책을 불문율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주(2003)는 만약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 외적이 일사천리로 한반도를 침범케 하는 이적행위가 되므로 길을 가급적 넓게 다듬지 말아야 했다고 덧붙였다.

비록 근대적 의미의 교통로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했다고 해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육상도로의 상태가 사람과 물자의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그리고 지리적인 연유로 인해 20세기 초반까지도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길’이라 부르기 어려운 정도로 육로교통의 발달이 미약하였으며 오히려 더욱 불편하도록 방치하였다. 따라서 시간당 십리 정도로 이동이 극히 제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시기 이전에 한반도에서 누군가 기거하던 곳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아 여행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교통조건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열악한 것으로서 많은 비용과 시간의 소요, 그리고 위험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교통조건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회적 계층도 극히 소수로 제한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남북이 분단되기 이전인 조선시대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유로이 금강산을 여행하고 따라서 그토록 많은 문학과 미술작품을 남겼으리라 생각할 수 있으나, 당시에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정도로 험거운 여정 길을 거쳐야만 경험할 수 있는 여행이었으므로, 금강산 여행은 사회 경제적 여건이 허락되는 극소수 계층만의 전유물이었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금강산에 가 보기 위해서는 한계상황까지의 소모되는 체력과 장기간의 소요, 그리고 신변의 위험과 불편에의 끊임없는 노출을 경험해야 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금강산 여행의 동기로부터 여행의 목적, 그리고 여행의 감상과 경험을 일생일대의 기억할 만한 사건으로 남기고, 그 기억을 답사기, 문학, 미술 등으로 재현하도록 구조화한 것은 바로 당시의 불편하고,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취약한 한반도의 육로교통과 이동성 제약이 극심한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4) 금강산 여행 - 사대부의 열망과 유교적 자연관

이처럼 금강산으로 가는 길은 종종 보통 사람들에게는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야 할 정도로 취약하였으며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여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산수를 감상하고 심신을 수련하려는 동기의 유람여행은 비록 사대부라 할지라도 평생의 소원으로 삼을 만한 일이었다(정치영 2003 2015, 국립중앙도서관 2014).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여행기라고 할 수 있는 ‘유산기’들 가운데 금강산 유산기의 서두를 보면 “40년 동안 고대해 왔다(이정구, 1603)”, “일생의 목은 빛을 청산하는 일이며, 내가 죽기 전에 제일가는 기이한 만남(권엽, 1607)”이라고 적어 이들이 얼마나 금강산 여행을 열망하는지를 짐작케 한다. 어떤 이는 금강산까지 왔음에도 여행이 불확실하게 되자 다음과 같이 말할 정도로 사대부들의 금강산 여행에 대한 열망은 대단한 것이었다.

“내가 길을 떠나오며 처음에는 기이한 절경을 반드시 보리라 마음먹었으나, 마침내 조물주의 시기로 뜻밖의 장애를 만났으니 참으로 천고의 다시 없는 슬픔이다. 만약 산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여 속세로 돌아간다면 죽어서도 탄식하며 한할 것이다... (최상익 외, 66)⁷⁾”

조선후기, 18세기 즈음에는 금강산 여행이 더욱 유행하여 금강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은 사람 축에 들지도 못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이상근b 2011, 박은순 2014). 위로는 임금으로부터 높은 관리들, 외국에서 온 사신들까지, 아래로는 서민층의 아낙네들까지 평생 한번은 꼭 다녀오고픈 곳이 금강산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대부들은 왜 이처럼 금강산 여행을 일생의 소망으로 삼게 되었는가?

조선시대에 사대부들은 산수(山水)를 단순히 자연만이 아닌 정신수양과 역사·문화가 집합된 장소로 인식하였다(이상근a, 2011). 김덕현(1999)은 퇴계의 산림계거에 대한 탐구를 통해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자연(산수)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심화된 분석을 수행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는 산수는 천지의 형상이었고 장중하고도 정한(靜閑)한 도장이었으며 평생토록 그토록 살고자 하는 말없는 스승이기도 했다(김덕현 1999, 34)”. 그에 따르면 자연에서 얻는 즐거움은 지적 이해나 합리적 선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자연에서 얻는 정감이 주체에 내면화되는 즐거움’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덕현은 유학자들의 자연에 대한 사랑이 그들의 지고 가치인 인을 실현하는 것이며 그것은 주체내면과 일체화된 시적 감성을 통하여 추구되지만 그것 또한 도덕적 이상의 발로라는 이중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덕현 1999, 36).

공자가 말한 ‘인자(仁者)는 요산요수(樂山樂水)’는 바로 이러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퇴계 이황은 이에 대해 보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산수를 즐긴다는 것(요산요수)은 본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어짐(仁)과 지혜(智)의 씨앗을 닦고 기쁨으로써 그 기상과 의사가 비슷한 산과 물을 즐길 수 있다...”⁸⁾. 이처럼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금강산 여행을 수행하면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해 마음속 깊이 감동하고 이를 필생의 목표와 비원으로 삼게 된 것은 산수를 대하는 이러한 태도가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홍인우의 <관동록>에 있는 퇴계이황의 발문에는 “... 산에 오르고 물에 임하면 일월처럼 밝게 성현의 행위를 본받아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이미 그것을 본 받았다 하리다. 지혜로움은 어짐에 미쳐 지켜지니 이 두 가지 즐거움이 있게 되는 까닭은 나와 자네들은 죽을 때까지 서로 더불어 알도록 힘써야 할 것이로다(최상익 외 2000, 58).

금강산의 승경을 본인이 하지 못한 아쉬움과 홍인우를 통해 대신 하는 다행스러움을 동시에 표현하면서,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것은 유학자로서의 ‘인(仁)’을 실현하는 학문적이고 도덕적인 책무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금강산 여행을 필생의 소망으로 만들

있던 당시 사대부들이 금강산에 대하여 갖는 ‘상상의 지리’는 사대부들의 지녀온 유교적 자연관이 구체화되는 지점이었다.

즉, 이는 자연을 대상화하여 보는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객관화, 대상화함으로써 현실화되는 현대 서구미학의 구성 원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외부에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으로 가져와 스스로 수양의 계기로 삼음으로써 ‘주체와 외부자연의 분리’가 아니라 내면을 성숙하고 도덕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다시 금강산기행으로 돌아가서, 홍인우가 쓴 기행문인 관동록(關東錄)⁹⁾에 보면, 금강산의 봉우리마다, 낮과 밤 해가 바뀔 때 마다 보여지는 숨막히도록 아름다운 경관에 대한 감탄의 기록이 곳곳에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풍광을 느끼고 감상함으로써 이상적인 도덕성에 도달하고자 하는 유교적 자연관을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밤에 맑고 밝은 기상을 얻어서 기를 수 있다면 인욕(人欲)이 깨끗하게 제거되어 하늘의 맑고 순수한 기운이 모든 곳에 넘쳐 흐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엇인가 억지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늘의 순수를 회복하여 맑고 깨끗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나와 같은 사람인데 어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최상익 외 2000, 23)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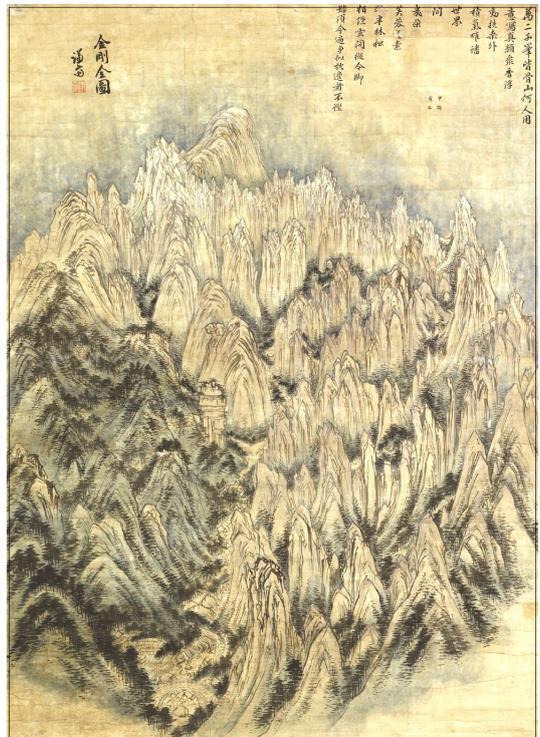
즉, 금강산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과 그 산을 찾아가려는 열망은, 이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완상하는 경험이 개인적인 쾌락과 즐거움의 추구에서 그치지 않고 도덕적, 학문적 실천과 연계하는 유교적 자연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5. 맺음말: 여행의 기억, 그리고 사회적 재현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국인에게 금강산은 여러 명산들 중에서도 유독 ‘가장 아름다운 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옛 사람들은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서부진화부득(書不盡畫不得)-글로 다할 수 없고 그림으로 이를 수 없다고’ 이라고 일렀고, 자연경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경험이자 아름다움의 로망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조선 후기 숙종~정조(1675~1800)대에 이르는 약 125년간, 금강산은 자연이 지닌 절대 미(美)의 재현체로서 그 신화적 명성이 정점을 이룬 시기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때를 ‘진경시대’로 부르기도 한다(유홍준, 2003). 이 때 중국의 경관이 예술작품의 모티브가 되던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비로소 한반도의 실경(實景)을 무대로 작품 활동이 이루어진 ‘진경시대’에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민족적 자존심과 예술적 창작의 원천으로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반도 최고의 아름다운 경관을 완상할 수 있는 장소인 금강산으로의 여행은 비록 사대부라 할지라도 필생의 소원으로 삼는 일이었다. 여건이 허용되는 계층이라 하더라도,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금강산 여행을 떠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선대 유람자들이 남겨놓은 유산기를 읽거나 그림을 보고 간접체험을 하는 와유(臥遊)로 대신하기도 하였다. 와유란 글자 그대로 누워서 유람한다’는 뜻으로,



지본담채, 59.0×130.7cm,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그림 6. 금강전도(정선, 1794) - 국보217호

집에서 명승이나 고적(古蹟)을 그린 그림을 보며 간접적으로 명산의 경관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처럼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들은 유람기, 혹은 유산기 등을 통해 금강산으로 가는 여정, 보고 느낀 것들을 매우 상세히 기록하여 남겨두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후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여정으로 여행하였다는 것을 볼 때에도 이러한 여행의 기록에 대한 의존도를 알 수 있다(이상균 2011, 정치영 2014, 박은순 2014). 금강산을 여행한 후의 기억은 문학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점차 그림으로도 그려지게 되었다. 자신들이 본 것들을 기록하여 여행에 돌아온 뒤에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상하고자 하는 것도 금강산을 그리는 중요한 이유가 되었다.

요컨대 금강산 여행자들은 유교의 이상을 실천하고 평생의 소망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강산으로 떠났으며, 극도의 험난한 여정을 겪고 다녀온 금강산 여행의 기억을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두고두고 감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여행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금강산은 상상의 지리 속에 한반도 최고의 절경이자, 가장 아름다운 자연으로 다시 재현되었다.

이처럼 금강산 여행자들은 금강산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금강산에 대한 특유의 장소감을 얻음과 동시에 비현실적 환상을 조합하여 금강산이 보여주는 자연의 경관들을 더욱 신비롭게 기록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재현된다. 즉,

금강산 여행의 출발부터 도착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꼼꼼히 기억하여 기행문학의 형태로 기록되고, 금강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기 위한 그림 그리기 등으로 시각예술의 형태로 재현됨으로써 비로소 금강산 여행이 마무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산을 다녀온 사람들은 여행을 다녀온 후, 도착지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그간의 여정을 세세히 기억하고 기록하며 예술작품 속에 재현되었는데, 이는 가보지 못한 이들의 기대와 후대인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행위였다. 다시 말해 금강산 여행 경험을 기록하고 시각적인 경관들을 재현하는 것은 개인차원의 문화예술 행위가 아니었으며,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재현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산 여정의 종료가 결코 그 여행의 끝이 아니었으며, 이후 금강산 여행자들의 의도적인 기록과 재현행위의 결과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여행이 열망되어 왔고 이러한 열망은 사회적으로 공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더욱 더 신비롭게 기록되며 일정 정도 환타지와 조합되어 한반도에서 가장 수려한 자연이자 신비롭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산지로서의 장소신화를 획득하고 후대에도 전승되어 왔다. 결과적으로 금강산은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이 인정하는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이라는 독보적인 장소신화를 형성하는 기반을 제공하게 되었다.



정선, <장안사> 풍악도첩 중 1711년, 견본담채, 각 37.4×36.0cm, 국립중앙박물관



김윤겸, <원화동천도>, 해악도병, 1768년, 지본담채, 38.8×27.7cm, 국립중앙박물관



조정규, <만폭동도>, 19세기 중엽, 지본수묵, 33.6×27cm, 국립중앙박물관

그림 7. 금강산을 그린 조선시대 그림

주

- 1) 조선후기에 편찬된 전국 군현지도집은 해동지도, 여지도, 광여도 등이 전제되고 있다. 영조대 중반부터 계속되던 官撰 회화식 전국군현지도집 편찬의 전통은 19세기부터 단절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호식 지도집 편찬의 흐름이 영조대 말부터 대세를 형성해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배우성, 1999). 특히 1872년(고종대)의 지도제작은 군사적 필요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도로 창역 등 육로상황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다. 이러한 조선후기~구한말 고지도들에 금강산이 표현된 지역은 ‘고성郡’과 ‘회양府’이다.
- 2) 금강산의 면적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면적 440km²과 설악산 국립공원 면적 373km² 보다는 큰 면적을 차지한다.
- 3) 관광(觀光)이라는 말의 동양적 어원이 있다. 중국 주(周)나라 시대에 <역경(易經)>이라는 주역(周易)의 문헌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 이 문헌에는 ‘觀國之光利用賓于王’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의 뜻을 풀이해 보면 ‘나라의 빛을 본다’ 또는 ‘나라의 빛을 보여준다’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전자는 ‘자국의 훌륭한 빛을, 즉 문화를 보여준다. 또는 타국에 보여주고 홍보한다’, 후자는 ‘타국의 실정을 시찰하고 전문을 넓힌다’는 의미이다(관광의 동양적 어원에 대해서는 권순(2000, 15)을 참조).
- 4) 한편 삼일포 안에 있는 정자가 사선정(四仙亭)인데, 경치가 좋아 네 신선이 놀며 3일간이나 돌아가지 않았다고 해서 삼일포라는 또 다른 설도 있다.
- 5)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의 신미양요를 거치면서 정부의 국방에 대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이에 대응하여 전국적인 읍지와 지도의 제작이 행해졌다. 지도제작은 1872년 봄에 각각 명이 내려졌는데(양보경, 1995) 이 지도를 <1872년 지방도>라고 불리고 있다(서울대학교 규장각). 특히 1872년(고종대)의 지도제작은 군사적 필요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도로 창역 등 육로상황에 대한 정보가 상세하다.
- 6) 김정화·이르게바에브 역, 2003, pp.296-297. 이 내용이 담긴 원저 제목은 ‘По Корее путешествии’이다. 원래 1958년에 모스크바에 있는 동방문학출판사에서 동방순례시리즈로 출간하였던 것이다. 이 책은 1895년부터 1896년까지 탐험대를 조직하여 수 차례 조선을 답사한 5인의 러시아 군장교들(카르네프 대령, 미하일로프 중위, 다테슈칼리안 공후, 알프탄 중위, 베벨리 중위)이 조사하고 관찰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 이름의 원어명과 저자에 관한 정보들은 유실된 상태이다.
- 7) 朝鮮時代 金剛山 遊記(최상익, 허남유, 김풍기 편역, 2005, 강원대학교 출판부)에 수록된 것을 발췌함.
- 8) 김덕현(1999, 36)에서 재인용
- 9) 朝鮮時代 金剛山 遊記(최상익, 허남유, 김풍기 편역, 2005, 강원대학교 출판부)에 수록된 것을 발췌함.
- 10) 이 부분은 <관동록>을 쓴 홍인우가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달빛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아름다운 풍경

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묘사해둔 것이다.

- 11) 금강산의 아름다움은 수많은 미술작품과 문학에서 재현되어 왔는데, 여기서 인용하는 ‘서부진화부득’은 한시가 안민영(安旻英)이 “금강 일만이천봉이 눈 아니면 옥이로다/월성루 올라가니 천상인 되었거다/아마도 서부진화부득(書不盡畫不得)은 금강인가 하노라.”고 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문헌

- 강경구, 2001, 조선대백과사전, 18권,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 강만길, 197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출판부.
- 경상대학교 명산문화센터, 2015, 한국산 연구의 전망과 학적 대상 시론, 명산문화센터 창립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국립중앙도서관, 2014, 옛사람들의 나들이, 특별전시 자료.
- 권순, 2000, 관광정책론, 백산출판사.
- 금강산사랑운동본부, 2004, 금강산과 세계유산, 제 1차 금강산사랑운동세미나 자료집.
- 김덕현, 1999, 유교의 자연관과 퇴계의 산림 계거(居溪), 문화역사지리, 11, 33-51.
- 김덕현, 1999, ‘삶의 질’을 위한 경관 독해-“자연미”와 “장소성”에 대한 문화지리학적 시론,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2, 23-37.
- 김기혁, 2007, 지역문화 연구 자료로서 고지도 및 지리지 -조선 후기 군현지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0, 9-142.
- 김선희, 2009,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삼각산 여행의 시공간적 특성, 문화역사지리, 21(2),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김영운, 1998, 북한의 주요 관광지과 관광상품, 북한연구소, 158-171.
- 김정팔, 1984, 조선경제지리,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평양.
- 김종래, 1999, 금강산과 언진산의 빙하, 과학기술출판사, 평양.
- 김종혁, 2005, 전근대의 물길과 이용방식, 역사비평, 71, 역사문제연구소.
- 김재완, 이기봉, 2000, 구한말~일제강점기 한강 중류지역에 있어서 교통기관의 발달에 따른 유

- 통구조의 변화, 지역지리학, 6(3), pp.1-36.
- 김정화 역, 2003, 내가 본 조선, 조선인, 가야넷 (카르네프, 미하일로프, 알프탄, 베벨리, 다데슈 칼리안, 이르케바에브, 1958, По Корее путешес тбниа).
- 김종연·김주용, 2005, 북한학자들에 의한 북한 지형 연구 현황: 장기지형발달과 하천지형, 빙하 지형, 산맥체계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지형학회지, 12(2), 한국지형학회.
- 도도로키 히로시(轟 博志), 2004, 20世紀 前半 韓 半島 道路交通體系 變化: “新作路”建設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박사학위논문.
- 문화일보 편집부, 1998, 서양인이 본 금강산, 문화일보.
- 박은순, 2014, 화에 담긴 민족의 성산, 옛사람의 이상향 금강산도, 월간 민화.
- 박종관, 2013, 지오투어리즘 관점에서 본 안데스 파타고니아와 아타카마의 지형경관, 한국지형학회지, 20(4), 15-28.
- 성춘자, 2015, 지역 정체성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고찰 -순천만국가공원을 사례로, 한국 사진지리학회지, 25(3), 75-86
- 세계관광기구(WTO), 2004, 금강산관광지구 개발 총 계획, 현대아산-한국관광공사.
- 세계관광기구(WTO), 2004, “금강산 개발을 위한 장소마케팅 전략”, 금강산 개발 시장분석, KPMG-Korea Fas., 49-98.
- 신성희, 2006, 장소의 선택적 구성과 자산화 -북한 금강산 관광특구의 개발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심승희, 1995, 역사경관과 지역 정체성에 관한 연구 -전주시 한옥보존지구와 역사유적을 사례로, 지리교육논집, 33, 32-73.
- 심승희, 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 -강진, 해남 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 양보경, 1997, 고지도와 역사연구, 역사와 현실, 26, 263-281.
- 유홍준, 2002, 동해항과 장전항: 외금강 관문의 어제와 오늘,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下), 중앙 M&B.
- 오종익, 1991, 우리나라 명승의 유형적 분류와 그 의 미학적 특징 -풍경형성요소와 명승의 류형적 분류, 지리과학(155), 평양.
- 이광수, 금강산 유기(遊記), 1924, 시문사, 문형렬 해제, 2011, 기파랑.
- 이기석, 최한성, 1998, 금강산과 장전항의 지리, 지리교육논집, 41, 1-14.
- 이상균a, 2011, 조선시대 사대부의 유람 양상, 정 신문화연구, 34(4),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상균b, 2011, 조선시대 외국 사신들의 금강산 유람과 그에 따른 폐해 고찰, 사학연구, 101, 127-169.
- 이현군, 2014, 朝鮮前期 漢城府 城底十里의 地理的 特性에 관한 研究, 지리학논총, 30, 51-68.
- 전영률, 손영중, 1989, 금강산 -북한사람이 쓴 금강산의 모든 것, 실천문학사.
- 전중환, 서민철, 장의선, 박승규, 2012, 인문지리학의 시선, 사회평론.
- 전중환, 2014, 국가 유산 ‘명승’의 조사 기록을 위한 가치 범주의 구상 -‘문화경관’으로서의 명승의 관점에서, 대한지리학회지, 49(4), 563-584.
- 정영식, 1999, 조선시대의 도로에 관하여, 한국사론, 41(42),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정영식, 1998, 조선시대 탈 것에 관한 규제, 역사와 현실, 27, 한국역사연구회.
- 정치영, 2003, 금강산 유산기를 통해 본 조선시대 부들의 여행 관행, 문화역사지리, 15(3), 17-34.
- 정치영, 2005, 유산기로 본 조선시대 사대부의 청량산 여행, 지역지리학회지, 제11권(1), 54-70.
- 정치영, 2015, 사대부 산수유람을 떠나다, 한국학 중앙연구원 출판부.
- 진경환, 2011, 인문텍스트와 명승 -고창 선운사 일대를 중심으로, 우리문화연구, 32, 167-196.
- 진중헌, 2005, 금강산 관광의 경험과 담론분석 - ‘관광객의 시선’과 자연의 사회적 구성, 문화역사지리, 7(1), 31-46.
- 최영준, 2004, 한국의 옛길 영남대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최운식, 2007, 한국의 전통사회 운송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최원석, 2009, 조선시대의 명산과 명산문화 -정치사회지배층의 명산 인식과 실천을 중심으로, 문화역사지리, 21(1),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최원석, 2014, *우리산의 인문학 -그토록 오래 주고 받은 관계의 문화사*, 한길사.
- 최상익, 허남유, 김풍기 편역, 2005, *朝鮮時代 金剛山 遊記*, 강원대학교 출판부.
- 황진태, 박배균, 2013, 한국의 국가와 자연의 관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연구를 위한 시론, *대한지리학회지*, 48(3), 348-365.
- 허우궁, 도도로키 히로시, 2007, 개항기 전후 경상도의 육상교통, 서울대학교출판부.
- 홍금수, 2009, 경관의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46-94.
- 홍순익 외, 1989, *조선자연지리*, 김일성종합대학교출판사, 평양.
- Anderson, K., & Gale, F. 1992, *Inventing places: Studies in cultural geography*. Longman Cheshire.
- Barns T. J.(eds.), 1992, *Writing Worlds: Discourse, Text and Metaphor in the Representation of Landscape*, London & NY: Routlage.
- Barthes, R., 1972, *Mythology*, London:Padadin, 정현역, 1995, 신화론, 현대미학사.
- Bishop I. B.,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이인화 역,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살림출판사.
- Castree, N., 2003, Place: connections and boundaries in an interdependent world, S.L. Holloway, S.P. Rice & G. Valentine, 2003, *Key Concept in Geography*, Sage Publications.
- Cohen, E., 1988, 'Authenticity and Aommoditization in Tourism', *Annals of Tourism Research*, 15, 22-35.
- Fein A., 1988, 'Historic Preservation', in C.W. Harris(ed), *Time Saver Standards for Landscape Architecture*, McGraw-Hill Book, 630-689.
- Gregory, D., 1994, *Geographical Imagination*, Blackwell.
- Jin, J. H., 2004, *The Role of Symbolic Landscape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dentity in Modern Korea*, Ph. D Thesis in Geography, UCLA.
- Jin, J. H., 2009, Pakdudaegan- scince and colonialism, memory and mapping in Korean high places, Cosgrove D. and Dora V., 2009, *High Places - Cultural Geographies of mountains, ice and science*, I. B. Tauris: NY, London.
- Lowenthal, D., 1975, Past Time Present Place: Landscape and Memory, *The Geographical Review*, 65(1), 1-36.
- Lukermann, F., 1965, Geography: de facto or de juce, *Journal of the Minnesota Academy of Science*, 32, 189~196.
- MacCannell, D., 1973, Staged authenticity: Arrangements of social space in tourist settings, *American Journal of Geographers*, 79(3), 589-603.
- MacCannell, D., 1976, *The Tourist: A New Theory of the Leisure Class*, Macmillan: London.
- Relp E., 1976, The Placeness and Placelessness, 김덕현, 심승희, 김현주 역, 2005, *장소와 장소 상실*, 논형학술.
- Shamma, S., 1995, *Landscape and Memories*, NY: Randsome House.
- Sheilds, R., 1991, *Places on The Margin: Alternative Geographies od Modernity*, London: Routlage.
- Short, R., 1991, *Imagined Country: environment, culture and society*, London:Routledge.
- Squire, S. J., 1990, Accounting for Cultural Meanings: the interface between geography and tourism stud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8(1), 1-16.
- Smith, M. K., 2003, *Issues in Cultural Tourism Studi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 Swyngedouw, E., 1989, 'The Heart of Place', *Geografiska Annaler*, 31-42.
- Tuan, Y.F., 1977, *Space and Place: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구동희, 심승희 역, 1995, *공간과 장소*, 도서출판 대운.
- Tunbridge, J.E. and G.J. Ashworth, 1996, *Dissonant Heritage: The Management of the Past as a Resource in Conflict*, London: John Wiley & Sons.
- Urry, J., 1990, *The Tourist Gaze*, Sage Publication.
- Zukin, S., 1991, *Landscape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Oxford.

W. Schivelbusch, 1977, *The Railway Journey - The Industrialization of Time and Space in the Nineteenth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4.

- **교신** : 신성희,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이메일: sunghee_shin

@snu.ac.kr, 전화: 02-880-7718)

Correspondence : Sung Hee SHIN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8, Korea(e-mail: sunghee_shin@snu.ac.kr, Phone: +82-2-880-7718)

(접수: 2016.01.29, 수정: 2016.02.20, 채택: 2016.02.25)